

“과거를 회상하며 현재를 인식한다”

박물관까지 건립한 족보출판사 대전 ‘회상사’

문화는 물론 사회계반분야의 지나친 중앙집중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니와, 출판에 있어서도 분명 지역 혹은 지방출판은 ‘주변부’의 열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지역적 특성에 힘입은 것은 아니지만, 탄탄한 전문출판사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오히려 그 전문성으로 지역성을 대표하는 경우도 있다.

대전직할시 중동에 자리한 회상사는 국내에 몇 안되는 족보전문출판사 중의 하나로, 최근에는 족보도서관을 따로 마련해 개관함으로써 화제가 되고 있다.

1954년 설립 이래 지금까지 족보출판에만 전념해온 회상사는 현재 전국 족보 출판량의 80~90% 정도를 차지하는 국내 최고의 족보출판사로 꼽히고 있는데, 그동안 만들어낸 사자의 족보는 물론 타출판사의 족보까지 수집, 명실공히 전문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공간을 선보인 것이다.

회상사 신사옥 5, 6층에 마련된 족보도서관은 총 260여평에 1천2백여 문종의 족보 3만여권이 비치돼 있다. 대형전열장 70개에 가나다순으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돼 있는 족보 이외에도 회상사 대표 林淵九(70)의 호를 딴 ‘春田기념관’에는 그동안 족보를 만들어 간 각 문종에서 감사표시로 보내온 각종 고서화·병풍·감사등이 전시돼 있다. 그리고 전문사에서 2명이 관리하는 열람실에는 족보목록카드와 좌석을 비치해놓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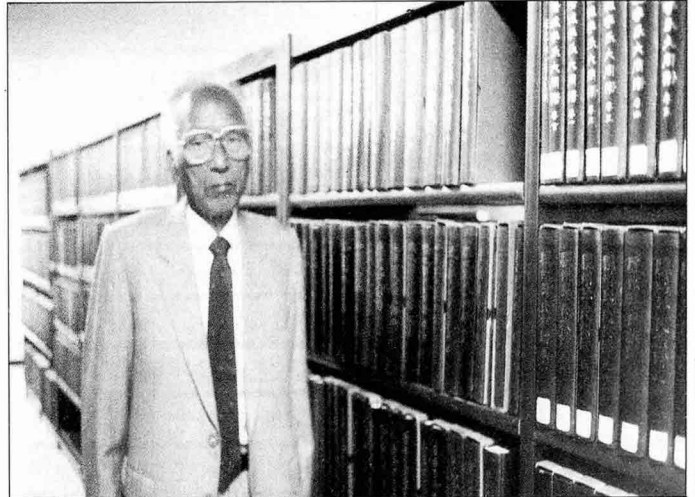
그동안 그의 손을 거처간 족보는 1천2백여 문종의 3백50만여권에 이른다. ‘回想文譜院’으로도 불리는 이 도서관을 개관하기 전부터

그는 충남대 도서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기증한 4천여권의 족보를 전시하는 등 전국 각 도서관에 1천권 이상을 기증하기도 했다.

한자이름 석자만 보면 그사람의 派까지 알 수 있다는 박흥구씨에 따르면, 세대변화에 맞춰 족보제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반상의 구별이 엄격하고 족보가 양반들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는 정3품 이상 堂上官만이 기록돼 그 문종의 위치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족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글전용으로 풀어쓰는 경우도 많아지고 모계쪽도 포함시키는 추세이며 사진의 활용도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영정과 묘자리, 심지어 재실사건까지 넣는 경우도 있으며 생존여부를 불문하고 얼굴 사진을 넣기도 한다. 컬러인쇄기를 사용하기도 해 족보가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 것도 요즘 족보의 특징이다. 장정에 있어서도 옛날 서책처럼 끈으로 묶는 형태에서 양장본으로 바뀌었고 자수로 장식하기도 한다.

현재 국내의 성씨는 2백70여개, 파는 약 3천 3백40개로 2개파 중 1개파는 회상사에서 족보를 만들어간 셈이라고 하는데, 한해 동안 70~80종의 족보를 인쇄해 왔다고 한다.

개인의 生·卒·墓·配·職의 5가지를 기록하는 족보에는 한 성씨의 유래를 실은 대동보와 같은 성씨내의 특정 파만 담은 파보, 그리고 한 집안의 직계 내력만을 밝힌 가승보가 있다. 이중 가장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파보로, 문종의 수에 따라 2~15권까지 천차만별이며 1회에 1~2천질씩 찍는 것이 보편적이다. 제작 비용은 1백권 내외의 소규모 가승보에서 5천질



박흥구씨

이상의 대동보에 이르기까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게 들기도 한다.

휴대하기 간편한 포켓용 족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족보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이 도서관은 “그대로 역사교육의 현장이 되며 귀중한 史料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박흥구씨는 족보출판의 까다로운 제작과정 때문에 웬만한 시설로는 주문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문족보의 경우 僻字가 많아 판독있는 전문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쇄에 필요한 특수 장비도 있어야 한다는 것. 현재 회상사는 자체내 청타실과 조판사, 인쇄실, 계본실을 완비하고 있고 종친회·대중회·종약원 등 여러가지 명칭의 문종모임으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위한 작업실까지 마련, 기획에서부터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주문량에 맞춰 제작하기 때문에 판매영업

에 고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족보 출판사로서의 이점이며, 단순한 상거래 이상의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출판 후에도 각 문종과의 교류가 이어져 개인적으로도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게 돼 보람을 느낀다.”

충북 제천성으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6·25 직후 대전으로 옮겨와 본격적으로 족보출판에 뛰어난 박흥구씨는 현재 1백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출판기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자신이 만든 족보가 미국 하버드대 등 30여개의 외국대학에서 동양사 연구자료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낀다.

국립도서관을 제외하고 완벽한 시설을 고루 갖춘 국내 최초의 족보도서관을 세운 그는 앞으로 계속 족보를 수집해 규모를 늘려가는 한편 선인들의 사상을 소개한 현대판 ‘문헌록’인 ‘회상문고’를 펴낼 예정이다.

— 정소연 기자

편집·디자인 실무 교과서가 나왔습니다.

EDITORIAL DESIGN SERIES

D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403페이지

제 1 권

편집실무와 전자출판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403페이지

EDITORIAL DESIGN SERIES

D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373페이지

제 2 권

편집디자인 실무분석

저자/김두식

크라운판 373페이지

특징

1. 완전 실무 위주의 집중분석.
2. 원고지 사용 요령부터 재분획인 요령까지 완벽한 실무 해설.
3. 풍부한 사진과 부분 원색인쇄로 읽고 보는 즉시 이해 가능.
4. 전산사식기, 전산편집기(DTP)의 기능과 특성을 기종별로 분석.
5. 어깨너머 배운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전히 체계 잡을 수 있도록 구성.
6. 초보자는 물론 경력자도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지침서.
7. 보다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한 편집디자인 실무를 완벽히 분석.

지금 유명 서점과 디자인용품 판매소에서 시판 중!

도서 출판 **타래** 서울·마포구 상수동 271 우성 BD 201호 전화 325-1945 · FAX 337-5239

3, 4, 6, 12개월에 걸친 편집·디자인 실무교육 교재로 활용 가능토록 구성하였습니다.